

멸쟁법을 통해서 본 승가의 쟁사 해결 방법(2) 칠멸쟁법②

# 부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 소통을 강조했다

언쟁을 해결하는 다른 방법은 현전비니에 다수결에 의한 멸쟁법인 '다인어'를 병행하는 것이다.

現前毘尼(sammukhāvinaya) + 多人語(yebhuyasikā)

다인어란 투표를 하여 다수결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투표는 행주(行籌, salākagāha)라고 하는데, 주(籌, salāka)란 사람 수를 헤아리는데 사용하는 것으로 나무나 대나무, 금속 등으로 만들어 크기나 색깔 등을 달리하여 구별한다.

빨리움에 의하면 단사 위원회에 의해서도 쟁사가 해결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승가가 투표 관리자인 행주인(行籌人, salākagāhāpaka)을 선발해 다수결에 의해 쟁사를 해결해야 한다고 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다수결의 방법과는 다르며, 투표 결과에 따라 무조건 다수의 의견을 채택한다고 하는 방법은 아니다. 즉 다수결은 다수결이나, 반드시 여법설자에 의한 다수결로 쟁사를 해결해야 한다. 여법설자와 비법설자의 구별은 행주인으로 선발된 비구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 행주인은 자신이 여법설자로 판단한 비구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도록 투표의 결과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행주의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이다.

①비밀행주(gāhaka-salākagāha) : 행주비구가 유색·무색의 주를 만들어 비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각 주가 어떤 주장을 하는 비구의 주인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비구가 주를 집으면 아무에게도 보이지 말라고 당부한다.

만약 행주의 결과, 비법설자의 것이 많다고 판단되면 그 결과는 무효로 돌리고, 여법설자의 것이 많다고 판단되면 결과를 승가에 고한다. 이 비밀행주는 (사분율)에서는 부정행사라(覆藏行舍羅)라고 하며, 예를 들어 여법의 비구가 많지만, 화상이나 아사리가 여법하지 못한 자일 때에 화상이나 아사리가 주를 집는 것을 보고 일반 비구도 그것을 따라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떤 주를 집었는가를 모르게 하기 위한 투표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②절어(齧語)행주(sakaṇṇajappaka-salākagāha) : 행주비구가 비구 한 사람 한 사람의 귓가에 대고 각 주가 어떤 주장을 하는 비구의 주인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비구가 주를 집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 후에는 ①비밀행주와 마찬가지로, 비법설자의 것이 많으면 그 결과는 무효가 되며, 여법설자의 것이 많으면 결과를 승가에 고한다.

이 비밀행주는 (사분율)에서는 이어행사라

(耳語行舍羅)라고 하며, 위의 비밀행주, 즉 부정행사라와 유사하다. 비구들 사이에 들어가 귓속말로 화상이나 아사리가 선택한 주를 알려주며 그것을 집도록 권유하는 것이다. 물론 이때 권유하는 주는 행주인이 여법설자라고 판단한 쪽의 주장이다.

③ 공개행주(vivāṭaka-salākagāha) : 이것은 여법설자가 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로 자신 있게 공개적으로 행주한다.

이와 같이 다수결이라고는 해도 쟁사는 반드시 여법설자의 의견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투표 결과 비법설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채용하지 않고 파기한 후 다시 행주해야 한다. 이것은 한역 제 율의 입장과 동일하다. (사분율)에서는 행주가 끝나면 행주인이 주를 다른 곳에서 헤아린 후, 여법설자의 표가 많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갖추고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한다. (오분율)에서는 행주 결과 비법설자의 표가 많을 경우에는 사람들을 몰래 불러 여법의 주를 취하도록 권유한 후에 다시 행주해야 한다고 한다. (마하승가율)의 기술은 좀 더 과격하다. 즉 행주의 결과, 비법설자가 많으면 해산시켜야 하는데, 만약 비법설자들이 그것을 눈치 채고 해산하지 않으려고 하면 쟁사 근처의 빈집에 불을 놓아 모두 흩어지게 한 후에, 그 틈을 타서 다시 근처에 사는 여법설자들을 불러 모아 행주를 해야 한다고 한다. 즉 다수의 여법설자에 의해 해결된 쟁사의 결과만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여겠다는 입장이다. 일견 공정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이 규정으로부터, 승가의 쟁사 해결의 기준은 오로지 붓다가 남긴 법과 율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법비율의 설은 아무리 다수의 설이라도 채용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붓다가 남긴 법과 율에 근거하여 법에 따라 율에 따라 이뤄진 판정만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 다인어라는 멸쟁법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과 율에 근거하여 여법과 비법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총명 유능한 비구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쟁이라도 쟁사가 사소하거나, 비법설자가 많다고 알고 있거나 추측될 때, 승가가 분열할 것을 알고 있거나 추측될 때, 혹은 비법이나 불화합(不和合)으로 투표할 때 등의 10가지 경우에는 다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멸쟁(anuvādhikaraṇa)

비구들이 어떤 비구의 행동을 잘못된 것으로 비난했으나, 그 비난 받은 비구는 자신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반론을 발생하게 되는 쟁사가 멸쟁이다. 이것은 다시 사실무근으로 비방 당하는 경우와 실제로 잘못을 저질러 비난받는 경우로 나뉜다. 사실무근으로



조계종 중앙총회 투표현장. 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경우 거수 혹은 무기명 투표를 한다.

비방 당하는 경우에는 '현전비니+억념비니'를 사용하며, 실제로 잘못을 저질러 비난받고 있을 경우에는 '현전비니+불치비니'나 '현전비니+떡죄상'을 사용한다. 특히 현전비니+불치비니는 관한 상태로 율을 어긴 경우에, 현전비니+떡죄상은 평상심으로 율을 어긴 경우에 각각 적용된다.

(1)현전비니+억념비니(憶念毘尼, sativinaya) : 억념비니란, 어떤 비구가 근거 없이 비방 당한 경우에, 그의 기억을 바르게 하여 채용하여 쟁사를 멸하는 방법이다. 억념비니는 다음의 다섯 가지 순서를 밟아 이뤄져야 한다.

①정정 무죄의 비구가 있는데  
②누군가가 그를 근거도 없이 죄를 지었다고 비방한다.

③비방 당한 그 비구는 기억이 분명한 상태에서 승가에 억념비니를 청하며,  
④승가는 그에게 백사갈마에 의해 억념비니를 해 준다.

⑤이러하여 여법화합이 실현된다.

이와 같이 억념비니란, 비구가 자신은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음을 분명히 기억해 승가에 알리고, 승가는 이 비구의 기억을 근거로 그의 무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쟁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멸쟁법도 사법현전(四法現前)으로 이뤄지는데, 이 중에서 인현전(人現前)이란 비방하는 자와 비방 당하는 자가 모두 참석하는 것을 말한다.

(2)현전비니+불치비니(不癡毘尼, amūha-vinaya)

멸쟁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현전비니+불치비니이다. 불치비니란 비구가 선정에 전념해 일시적으로 정신적란 상태에서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치의 '치(癡)'는 발광한 때의 상태를

가리키며, '불치(不癡)'란 지금은 발광 상태로 부터 회복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 것,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정신적란 상태였음을 승가가 승인하고 죄를 묻지 않는 것이 불치비니이다. 이 비니도 억념비니와 마찬가지로 저지 당한 비구가 정신이 돌아와 승가에 불치비니를 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이뤄진다. 그의 요청을 받은 승가는 백사갈마에 의해 그에게 불치비니를 해 주고, 이 비니가 성립되면 그가 관한 상태에서 저지른 잘못은 묻지 않아야 한다.

한편, 비법의 세 가지 불치비니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① 어떤 비구가 죄를 지어 승가나 무리, 개인이 비난하면서 그에게 죄를 기억하느냐고 묻는다. 그는 자신이 죄를 지진 것을 기억하면서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승가가 그를 위해 불치비니를 하는 경우.

② ①과 마찬가지로 질문 받았을 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면서도 꿈속에서 저지른 것 같다고 대답하고, 승가가 그를 위하여 불치비니를 하는 경우.

③ ①과 마찬가지로 질문 받았을 때, 제 정신이면서 미친척하며 중얼거릴 때, 승가가 그를 위하여 불치비니를 하는 경우.

즉 불치비니가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관한 상태에서 저질러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해야 하며, 발광하지 않은 비구가 발광한 척하며 계율을 어겼을 경우에 승가가 그에게 해주는 불치비니는 비법이다. (계속)

이처럼 동국대 HK연구교수(일본 동경대 박사)



###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3)

## 한국불교, 평화 논할 수 있는가

간혹 살다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일이 전개되는 경우가 있다. 처음에 필자는 조계종 화쟁위에서 발표한 '종교평화 실현을 위한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 (초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몇 편의 글을 기고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종교와 평화'라는 큰 주제 아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로 기획되었다. 이번 기회에 불교의 평화사상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평화(平和)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서 평화란 ①평온하고 화목함. 화합하고 안온함. ②전쟁이 없이 세상이 평온함이다. '평화'라는 단어는 불교술어인 팔리어 '산티(santi, Sk. santi)'와 '닙바나(nibbana, Sk. nirvana)'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산티'는 '정적(寂靜)', '적지(寂止)', '적멸(寂滅)'로 번역되고, '닙바나'는 '열반(涅槃)'으로 번역된다.

평화의 반대말은 '폭력'이다.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폭력 및 테러의 배후에는 종교적 신념이 깔려 있다. 가장 평화로워야 할 종교가 폭력의 주범이 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서양의 역사는 한마디로 정치와 종교의 관계, 즉 '정교관계사(政教關係史)'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서양에서는 정치와 종교 간의 갈등과 긴장 및 유착의 관계 속에서 전개돼 왔다. 근대 서구 사회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이 등장하기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오늘날에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 [마성, '정치참여에 대한 출가자의 태도', (불교평론) 제35호(2008), p.28] 그만큼 정치와 종교 간에 갈등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모든 종교는 평화를 추구한다. 9·11 테러 이후 이슬람이 세계 평화를 해치는 주범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결코 이슬람은 폭력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슬람이란 말 자체가 평화를 의미하고 이슬람과 테러리즘을 연결하는 지하드(jihad)의 개념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와의 영적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성전(聖戰)의 개념이 아닌 것임을 이슬람을 본질적으로 성찰하면 잘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본질적으로 성찰하면 그 속살은 상당히 다르다.' [박성원, '개신교와 세계평화', (세계평화를 위한 5대종교간의 대화)(아시아태평양공동체, 2011), pp.9-10]

반면 불교는 평화의 종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전쟁을 위해 다른 종교를 박해하거나 먼저 전쟁을 일으킨 적이 없기 때문이다. 가장 평화롭고 자비로운 종교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교가 먼저 평화를 파괴한 역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굳이 불교가 타종교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제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이처럼 불교 본래의 정신은 자비를 바탕으로 한 평화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현대의 한국불교는 평화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11월 4일 중앙총회 회의장인 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로비에서 같은 중앙총회위원회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지금까지 조계종단의 폭력사건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다. 83년 신홍사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85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한 봉은사 사건, 94년과 98년 종관장악을 위한 폭력사건 등은 해외포적으로 보도됐다. 이처럼 폭력으로 얼룩진 조계종단사의 뿌리는 54년 5월 이승만대통령의 불교정화에 관한 유시로 촉발된 비구-대처간의 분쟁에서 비롯됐다. 이 분쟁을 시작으로 한국불교는 폭력의 종교로 전락해 버렸다.

조계종 화쟁위가 다른 종교와 평화를 실현하고자 제안할 것이 아니라 불교계 내부의 폭력부터 단절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구와 비구니의 갈등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화쟁위가 다른 종교와 화해를 시도할 것이 아니라, 불교 내부의 얽히고설킨 갈등부터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향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헵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헵프오일비누  
1개 10,000원

**■건포, 스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돌면서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위생적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삼베사워타올 (건포마사지)**

-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 피부의 더러움과 죽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 지지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 원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삼베세안타올**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삼베수세미**

-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헌불샵 | 서울시 중로구 수송동 수송빌딩 2층  
T. 02)2004-8216 / F. 02)737-0696 www.hyunbulshop.com  
[농협 053-01-269062 | 국민은행 343601-04-046766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